

미래차 전환 정책 한눈에…“자동차 생산 60만대 실현”

광주시-10개 기관, 기업 지원사업 통합 설명회 AI모빌리티 시범도시·자율주행 실증도시 등 소개

광주시가 지역 자동차부품업체들의 미래차 전환 역량을 높이기 위해 10개 기업 지원기관과 손잡고 지원사업을 한자리에 모아 안내했다.

광주시는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과 함께 29일 광주테크노파크 국제회의실에서 ‘미래차 대전환 결의 및 기업지원사업 통합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내연기관 중심의 지역 부품사들이 급변하는 미래차·자율주행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 별로 흩어져 있던 지원사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김성진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장, 신현구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 기업·협회 관계자 등 모빌리티산업 산·학·연·관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또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과 광주테크노파크를 비롯해 중소벤처기업진흥

공단 광주지역본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서남기술실용화본부, 한국자동차연구원 광주본원, 광주경제자유구역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광주산학융합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발명진흥회 광주지부 등 10개 기관이 참여했다.

각 기관은 △미래차 핵심부품 국산화 연구개발(R&D) 지원 △자율주행 실증 인프라 활용 △해의 판로 개척 및 마케팅 △미래차 전환 기업 자금리 금융 지원 △친환경 자동차부품 시험·인증·평가 지원 △공용실험실·전용연구실 지원 △산업맞춤형 전문기술인력 양성 △미래모빌리티 자동차융합 산학협업체 지원 등 기관별 특화 사업을 소개했다.

시는 ‘인공지능(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와 ‘자율주행 실증도시’ 사업을 중심으로 신규 사업 추진 방향도 공유했다.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는 ‘인공지능 대표도시 광주’의 AI 산업 기반과 모

빌리티 역량을 결합해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가주형 AI 기술·실증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또 광주 전역을 자율주행차 실증 공간으로 활용하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사업은 실제 시민이 이용하는 도로에서 자율주행 AI 기술 개발과 서비스 상용화 검증을 동시에 추진해 국제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해 지역 자동차 생산량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관세와 고환율, 고물가 등 ‘3중 파고’ 속에서도 58만660대로 역대 두 번째 실적을 기록했으며, 수출량은 39만1207대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행사에서는 올해 자동차 생산량 60만대 시대를 열고 ‘부강한 광주전남’의 원년을 만들기 위해 지역 모빌리티 산업 관계자들이 상호 협력 의지를 다지는 시간도 마련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부품업체 대표는 “미래차 전환 필요성은 느끼고 있었지만 어떤 사업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했다”며 “10개 기관이 통합 정보를 제공해 사업계획



강기정 광주시장이 29일 광주테크노파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미래차 대전환 결의 및 기업지원사업통합 설명회’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자동차 생산 60만대를 향한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

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강기정 시장은 “미래차·자율주행차 중심의 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부강한 광주전

남의 새 시대를 이끌 핵심 성장동력”이라며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와 자율주행 실증도시 사업을 통해 광주전남이 대한

민국 미래 모빌리티를 선도하는 대표도시로 나아갈것다”고 강조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시, 전기차 2279대 구매 보조금 지원

승용차 최대 754만원·화물차 1365만원

광주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자동차 2279대에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차종별 지원 규모는 전기승용차 1930대, 전기화물차 330대, 전기승합차 19대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산해 전기승용차 중·대형 기준 최대 754만원, 전기화물차 소형 기준 최대 1365만원, 전기승합차 중형 기준 최대 6500만원까지 지원되며, 차량 성능과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전기차 보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물량의 10%를 우선순위 대상자에게 배정하고, 택시·택배 등 운송업 종사자에게는 5%를 별도로 배정한다. 우선순위 대상자는 장애인,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 차량구매자 등이다.

올해는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차를 전기차로 교체(매매·페차)하는 개인에게 전환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다만 가족 간 증여나 판매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환지원금은 국비 최대 100만원, 시비 최대 30만원으로, 노후 차량 감축과 친환경차 전환을 동시에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차상위 이하 계층, 소상공인 국비 지원액의 20~30%, 농업인 국비 지

원액의 10%, 청년(19세 이상~34세 이하) 국비 지원액의 20%, 전기택시 250만원, 택배용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다자녀가구 자녀 수에 따라 국비 최대 3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광주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과 광주지역 내 사업장을 둔 기업·단체 등이다. 기존 ‘광주 거주 90일 이상’ 요건을 ‘30일 이상’으로 완화해 시민과 청년층의 전기차 구매 접근성을 높였다.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수입사가 광주시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되며, 보조금은 차량 출고 및 등록 완료 후 광주시가 제작·수입사에 직접 지급한다.

구매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차량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내용과 대상 차종 등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병춘 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는 시민 건강과 직결된 대기환경 개선 정책”이라며 “친환경 차량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

전남 자동차 131만대…1.4명당 1대 ‘전국 최고’

전년비 3만8000대 ↑ 전국 2650만대 ‘돌파’

전남의 자동차 누적등록대수가 131만대를 넘어섰다. 인구 대비 자동차 보유 수준도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자동차 등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남의 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131만6314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27만7926대)보다 3만8388대(3.0%)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광주는 72만9800대로 전년(73만751대) 대비 951대 줄었다.

인구 대비 자동차 보유 수준에서도

전남이 두드러졌다. 전남은 인구 177만 9135명 대비 자동차 131만6314대가 등록돼 등록비율 0.74를 기록했다. 인구 1.4명당 1대 수준으로 전국 최고치다.

광주는 인구 139만2013명, 자동차 72만9800대로 등록비율 0.52로 나타났다. 인구 1.9명당 1대 꼴이다.

전남 신규 등록은 10만7306건으로 전년(10만64건)보다 7242건(7.2%) 증가했다.

광주는 3만6302건으로 전년(3만6279건) 대비 23건 늘어 증가폭이 미미했다.

전기차 누적등록대수는 전남이 2024년 말 3만1417대에서 2025년 말 4만1322대로 9905대(31.5%) 늘었다.

광주도 1만5240대에서 1만9115대로

3875대(25.4%)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말 자동차 누적등록대수가 2651만대로 전년 대비 21만7000대(0.8%) 증가했다. 인구 1.93명당 1대 수준이다.

친환경차 누적등록은 349만대로 1년 새 74만7000대 이상 늘어난 반면, 내연기관차는 2284만대로 52만9000대 감소했다. 특히 경유차 감소폭이 49만6000대로 내연기관차 감소세를 주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연기관 자동차는 감소세를 보이거나 친환경 자동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신규 등록 전기차 점유율이 확대되는 등 친환경차 수요 증가와 다양화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전남도는 지난 28일 남도장터, 고흥군, 영암군, 완도군과 함께 ‘남도장터-시·군물 연합 시스템 업무협약’을 맺고, 도·시군 온라인 쇼핑몰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계하는 통합 운영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남도장터, 시·군 온라인쇼핑몰과 통합 운영

도, 고흥·영암·완도군과 협약…운영비 절감·매출 증가 기대

전남도는 지난 28일 남도장터, 고흥군, 영암군, 완도군과 함께 ‘남도장터-시·군물 연합 시스템 업무협약’을 맺고, 도·시군 온라인 쇼핑몰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계하는 통합 운영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연합 시스템의 핵심은 ‘사용자 편의성’과 ‘운영 효율성’ 강화다. 기존에는 소비자 시·군별 쇼핑몰을 이용할 때마다 각 각 회원 가입을 해야 했지만, 연합 시스템 도입으로 한 번의 가입만으로 남도장터와 3개 시·군몰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운영 측면에서도 대폭적인 효율화가 이

뤄진다. 남도장터가 구축한 통합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주문·발주·정산을 일괄 처리해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개별 시스템 유지보수에 들어가던 중복 비용을 해소했다.

이에 따라 쇼핑몰 운영비는 기존보다 약 30% 절감될 것으로 분석됐다. 연합 시스템에서도 각 시·군 쇼핑몰의 정체성은 유지된다. 고흥몰, 영암몰, 완도몰 정정마켓은 독립적인 쇼핑몰 형태를 유지하며, 각 지자체 관리자가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모션과 쿠폰 정책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전남도는 시스템 통합과 94만명 규모의

통합 회원 기반 마케팅이 결합할 경우, 참여 시·군몰의 매출이 평균 3.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남도장터와 3개 군은 오는 3월 시스템 본격 가동을 목표로 막바지 점검을 진행 중이며, 향후 실시간 방문 통계 분석 등을 활용해 데이터 기반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위연 전남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연합은 못지않게 살고 싶어지면 죽는다는 단순한 진리를 유통 시스템에 구현한 사례”라며 “운영비는 줄이고 편의성은 높인 이번 모델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2027년까지 16개 시군이 참여하는 연합 시스템으로 확대해 전남형 온라인 유통 생태계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현대차·기아, ‘비전 펄스’ 공개 UWB 활용…주행 안전기술

현대자동차·기아가 세계 최초로 벽이나 장애물 너머 보이지 않는 위협까지 감지하는 차세대 주행 안전 기술 ‘비전 펄스(Vision Pulse)’를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카메라나 레이더가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초광대역(UWB) 전파로 뚫어보는 것으로, 자율주행과 산업 안전의 새로운 표준이 될 전망이다.

비전 펄스는 스마트폰과 차량 디지털 키 등에 쓰이는 UWB 통신 기술을 응용했다. 차량과 보행자(혹은 사물)에 탑재된 모듈이 서로 전파를 주고받는 시간을 측정해 위치를 파악하는 원리다.

비전 펄스 기술을 차량에 적용하면 우선 차량에 적용된 UWB 모듈이 전파를 발산한다.

만약 주변의 다른 차량이나 오토바이, 자전거, 보행자 등에도 UWB 신호를 발산하는 모듈이 있다면 양쪽 UWB 모듈이 각각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시간을 측정하게 되고, 이를 통해 상대방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한 뒤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고를 줘 안전성을 높인다.

비전 펄스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별도 UWB 모듈을 차량에 설치할 수도 있으나, ‘디지털 키’ 적용 차량의 경우엔 해당 모듈이 이미 적용돼 있어 별도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도 활용이 가능할 수 있다.

특히 UWB의 특성상 GHz(기가헤르츠)폭의 초광대역 전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전파와의 간섭이 적고, 투과 성능이 뛰어나 장애물이 많은 도심지 교차로 등에서도 반경 약 100m 범위에서 사물의 정확한 위치를 10cm 오차 범위 내로 파악할 수 있다.

또 UWB는 야간이나 악천후에서도 99% 이상의 탐지 성능을 유지할 수 있고, 1~5ms(밀리초, 1000분의 1초) 수준의 빠른 통신이 가능해 실시간 안전 관리에 유용하다.

현대차·기아는 이번 비전 펄스의 기술적 특징점과 활용성을 보여주는 영상도 공개했다.

유치원생들이 ‘수호신’ 모양의 키링(Key Ring)을 가방에 달고 있으면, 통학 버스가 아이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사고를 막는 방식이다. 키링에 무드등 기능을 넣어 아이들이 출전을 높이처럼 느끼게 한 세심한 설계도 돋보였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고향주부모임 광주시지회 정기총회

농협 광주본부, 농심천심 운동 결의 등

농협 광주본부는 최근 본부 대강당에서 (사)고향주부모임 광주시지회 대의원과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총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지역사회 나눔과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해 힘써온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새해 사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고 도농상생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농심천심(農心天心) 운동’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농업인의 마음이 곧 천심이라는 뜻을 되새기며 우리 농산물 애용과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에 앞장설 것을 다

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기원하는 동참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회원들은 고향사랑기부제가 농촌 소멸 위기 극복과 도농 균형 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에 나서겠다고 뜻을 모았다.

지난 한 해 지역사회 봉사에 앞장선 우수분회 시상식에서는 평등농협 분회가 본부장상을, 서광주농협 분회가 시지회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이철호 농협 광주본부장은 “지역사회에서 나눔과 봉사문화를 실천하는 고향주부모임이 더욱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다”고 전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